

EU Immersion Fieldtrip 2012

탐방보고서

Green Politics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Europe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이슬, 이윤주



목차

1. 탐방 개요 목적 및 일정
2. ECOLO 소개와 인터뷰
3. DG Environment 소개와 인터뷰
4.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1. 탐방 개요

목적

•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IMF사태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한편, 양극화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분배의 문제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 2011년 한국 녹색당이 창당하여 2012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국회 의석 확보는 실패하였으나 짧은 시간 내에 녹색당이 결성되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사회도 서구 선진국이 그 발전단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과 삶의 질을 돌아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대해 학계 뿐 아니라 대중적 관심 높아진 한국 상황에서 유럽의 녹색정치와 환경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정

일정	유형	기관	interviewee
6/28(목) 10:00-12:00	국내 정당	벨기에 녹색당 Ecolo	ECOLO 정치 자문관 Hadelin de Beer Conseiller politique ECOLO
6/28(목) 10:00-12:00	EU 기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Bartosz Cieleśzyński 한중일&ASEM협력 정책 관리자

2. ECOLO

소개



ECOLO = Ecologistes Confederes pour l'Organisation de Lutttes Originales

벨기에 왈롱지역(프랑스어권)에서 활동하는 환경정당

- 1980년 창당
- 세계 최초로 국회에 진출한 녹색당
- 1984년 유럽선거에서 벨기에 녹색당은 2개 의석 확보
- ECOLO는 내부적 이념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 비교적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어 녹색당 활동의 성공적 사례로 보고됨

역사

-1970년대 말 환경활동단체 “지구의 친구” 중심으로 탄생

-1978 아모코 카디즈 석유 누출사고,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냉전기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 등으로 ECOLO는 그들의 주장을 널리 설파

-1979 ECOLO 첫 선거에서 불어권 유효표의 약 5% 득표

-1988 불어권과 네덜란드어권의 협상으로 왈롱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 왈롱지역의 분노한 교사들 ECOLO와 결합

-1999 선거 :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대승
ECOLO는 불어권에서 18% 가량 득표

- 2003 선거에서 연정파트너였던 사민당, 자유당과 갈등으로 연정 탈퇴. 이로 인해 신뢰를 잃은 파트너 이미지와 집권당에 대한 불만으로 선거에서 대패. 지지율 10% 이하로 하락
- 2003 이후 녹색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007 선거에서 “더 푸른 지구, 더 공정한 세계를 지금 당장”이라는 구호와 2003년 선거에 비해 의석과 득표율을 배로 늘림
- 2010 9월 ECOLO 30주년
- 2012 8월 현재까지 유럽에서도 성공적인 녹색당으로 활동

인터뷰

Q. 기존 정당과 다른 녹색당의 특징

- 기존 당은 모두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ECOLO는 무절제한 소비를 경계하고 자연친화적 정책을 제시한다.

Q. 벨기에 녹색당의 특징

- 다른 당과 연합하지 않음. ‘녹색’만을 구호로 활동.
이와 반대로 프랑스 녹색당은 1990년대부터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인해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한편 프랑스 녹색당은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한다.

-> 정당으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Q. ECOLO와 유럽통합?

- 유럽통합 그 자체로서는 흥미로운 움직임이지만, 유럽위원회가 하는 정치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들은 시장과 경제만을 생각한다.
-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통합을 원할 수록, 녹색당은 유럽이 정책노선을 변경하기를 원한다. 특히 발전 모델의 변형에서 전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 그 변형은 다음과 같다 : 지구의 자연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국가나 사회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 경제를 인류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것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환경 정책’

- etopia는 2004년 창설된 반 자치적 역할을 하는 단체
- ECOLO에 속해있지만 정치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속적인 환경교육에 힘씀
-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담긴 출판물을 발행
- 대중과의 토론을 강화, 시민과의 대화, 정치와 시민 사회와의 거리 좁히기는 에토피아의 중요한 목적들

3. DG Environment

소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분과 하위 기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 및 향상이 목표

- EU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유럽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켜나가는 정책을 제안
- 회원국들이 EU 환경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지 확인
-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회의에서 환경 문제에 관해 EU를 대표함
- 재정지원 기구인 LIFE 등으로 EU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조달

인터뷰

Q. 환경총국의 정책설정 및 입법 과정

▶ EU Competence (EU 권한)

Exclusive Competence (배타적 권한)

- 관세 동맹
- 유로존 통화정책
- 내부시장 기능을 위한 경쟁규칙 제정
- 공동어업정책 하 해양생물자원협약
- 공동 상업 정책
- 특정 국제협약 체결

Shared Competence (공동 권한)

- 내부시장
- 조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한 사회 정책
-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합
- 해양생물자원협약을 제외한 농업과 수산업
- 환경
- 소비자 보호
- :

▶ Principles of EU Law(EU법 원칙들)

Principle of Integration (통합의 원칙)

- 환경 정책은 다른 정책 영역들과 통합되어야 한다.
- 환경 정책은 산업정책, 상업 정책, 교통 정책 등도 반영해야 한다.

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충성의 원칙)

- EU는 회원국과의 공동 권한 관계에서 일반적 수준의 기초적 입법만을 제정한다.
- 조약상 제안된 행동 목표를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그 제안된 행동의 규모나 효과로 인하여 EU가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경우, EU가 자신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회원국의 국내적, 지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다.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끼칠 가능성 있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로 구성된다.
- 평가의 목적은 의사결정자들이 프로젝트 진행 결정시 뒤따르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 영향평가국제연합(IAIA)는 환경영향평가를 “주요 의사 결정과 착수에 앞서 개발 제안의 생물물리학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의 규명, 예측, 평가, 완화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 Aarhus Convention (오르후스 협약)

-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정보 접근, 의사결정 공적 참여, 정의에의 접근에 대한 UNECE의 협약
- 1998년 6월 25일에 덴마크 Aarhus에서 서명되고, 2001년 10월 30일에 발효됨. 2009년 7월, 40개국과 유럽연합에서 서명되고 41개국에서 비준됨. 이는 또한 입법에서 오르후스식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European Community에서 비준됨



오르후스 협약은 지방적, 국가적, 경계초월적 환경을 염려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보접근, 공적 참여, 정의 접근에 대해 대중의 권한을 인정한다.

AARHUS CONVENTION
for our environment

Q. The 6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 (제6차 환경 실천 프로그램)

- 기간: 2002~2012, 10년
- 7대 주제: 공기, 농약,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천연자원, 토양, 해양과 도시환경
- 6th EAP의 최종 평가: 환경정책의 진전 + 실질적 이행의 부족
- 지난 10년간 6th EAP의 환경의 거의 모든 영역을 위한 입법 원조는 자명
- 주요한 성취들: EU 토지 면적의 약 18%에 달하는 Natura 2000 네트워크의 확대, 포괄적 화학 정책 도입,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실천
- 합의된 EU 목표와 규칙의 이행과 생물다양성 보호, 토질과 수질의 증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진전이 더 이루어져야 함
- 커미셔너 Janez Potočnik: “우리는 좋은 결과를 성취했지만 우리가 희망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6th EAP의 야심 찬 입법과 그의 최종 결과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EU 규칙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현재 치료로부터 환경파괴의 방지로 이동해가고 있다. 프로그램의 최종평가는 이후 몇 년간의 EU 환경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폭넓은 공적 토론을 촉진시킬 것.”

Q. 환경친화적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

시민의 사회적 인식
과 자각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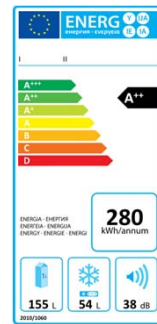


어린이에게 환경의식 심어주기.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 교육까
지 계속 이어지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부문에서
인센티브 부여



EU
Energy
Label



4.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ECOLO

- 녹색정당의 의식 확보에 미치는 선거제도의 영향은 매우 크다.
- 녹색당 자체의 중심이 확고해야 한다 -> 대중적인 지지 유지의 비결.
- 녹색당이 제도정당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정당으로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정치이력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영역과 정치활동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탈물질주의적 가치라는 요인이 중요하다. → 대중적 지지층의 확보

DG Environment

- 정책 설정 과정에서 관료의 상의하달식 정책이 아닌 지역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복잡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신중함은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점으로 보여진다.
- 규범적인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에 더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적실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Thank you.
Merci Beacoup.

